“AI시대, ‘불교 자비윤리’ 필요하다”

‘인공지능’ 주제 불교학계 논의 잇달아

허남결, 반야硏 학술대회에서
AI기반 불교 자비윤리 강조해
올해 교수불자대회 ‘AI’ 다뤄
〈금강경〉 기반 윤리관 제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11월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ChatGPT)’는 인공지능 시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메타 등 거대 IT회사에서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추진키로 하며 잇달아 개발에 들어갔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성경을 활용한 챗봇인 ‘성경GPT’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학계의 논의들이 잇달아 이뤄졌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7월 2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AI 축복인가 재앙인가- AI시대의 명암과 불교적 진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남결 동국대 교수는 ‘인간의 미래, 불교의 미래-인공지능의 발전과 자비윤리의 요청’을 통해 AI시대에 기반한 불교 윤리를 제안했다.

허 교수는 피터 D. 허쇽(Peter D. Hershock)의 저서 〈불교와 지능 기술-보다 인간적인 미래를 위하여(2021)〉을 소개하고 AI가 제기한 핵심적인 도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허쇽이 제시하는 불교 AI 윤리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적 공존의 윤리’다. 특히, 대승의 보살도 사상과 육바라밀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존재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윤리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은 과학과 영성 사이를 지혜롭게 연결하는 인문학적 사유능력을 요구하며, 불교가 이 부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허 교수는 “불교는 자연세계와 정신세계에 이어 인간세계를 서로 융복합할 수 있는 우주적 이론체계인 ‘연기설’이 있다”면서 “이런 관념을 구현한 불교적 AI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과학과 영성을 결합한 고통치유형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와 자비적 행동은 불교 AI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적 공존의 지혜는 스탠포드대 인간중심지능연구소(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나 하버드대 ‘임베디드 에틱스 프로그램(Embedded Ethics Progarm)’의 설립 취지와 연구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면서 “불교는 변함없이 인간과 기계와 그 외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고 이념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교수 불자들의 신행모임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7월 3~5일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와 사부대중의 길’을 주제로 ‘2023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수불자대회에서 교수 불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나아갈 길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했다.

특히, 김유리 동국대 종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조계종 前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인공지능시대, 불교 교육 방향성 고찰을 위한 시론적 연구’에서 〈금강경〉에 기반한 인공지능 윤리관 구축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저자들은 “〈금강경〉은 새로운 시대의 산물인 인공지능을 어떤 존재로 인지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제시한다”면서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적 준거를 탈(脫)인본주의적으로 새롭게 탐색하려는 이론적 접근 중 하나가 바로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인데, 이는 정신과 물질의 일원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적(생태적) 산물과 인간(사회), 그리고 기술적 산물(기계, 인공지능)들이 모두 평등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는 수평적 존재론(flatontology)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존을 위해선 지구상의 모든 물질과 존재들이 네트워크적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포스트휴머니즘’은 〈금강경〉에서 유기적 연기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나와 세상의 존재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주변인들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은 〈금강경〉을 통해서 충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통기법 만난 연꽃, 새로 피어나다

갤러리 한옥, 서혜진 개인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회화 · 복식 기법 콜라보 눈길



서혜진 원장의 ‘연화화생도(蓮花化生圖)’, 105×70(cm), 면바탕 분채 금분 비단장식.

전통 불교회화에 새로운 기법들을 콜라보한 연꽃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

갤러리 한옥은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서혜진 승담전통미술연구원장의 개인전 ‘연꽃,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회화 전공자로서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한 서혜진 원장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담겨 있다.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에 대한 고민은 판본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전시 작품 중 앵무새가 석가모니에게 설법을 청한다는 ‘앵무청불’이나, 석가모니가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증명하는 ‘증명설주’는 〈석씨원류응화사적〉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서혜진 원장은 “〈석씨원류응화사적〉은 양주 불암사의 목판으로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기술한 것인데, 목판의 특성상 다소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회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초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극락으로 가는 과정과 염원을 그린 ‘용선접인도’나, ‘연화화생’은 복잡한 경구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애착이 컸다”고 밝혔다. 기존 불교회화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고심은 전통복식 기법의 응용으로 이어졌다. 여러 작품들에 비단을 삼각형으로 접어 동그랗게 바느질한 연꽃 모티프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잣물림’이라고 불리는 기법이다. 마치 뾰족한 잣송이가 서로 물려있듯 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복 등의 꾸밈에 쓰인다.

서혜진 원장은 “전통복식의 잣물림 기법과 전통회화 기법을 조화롭게 구성함으로서 평면적인 회화에 입체적인 연꽃 장식을 더하고 싶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회화의 전통과 새로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상 담은 사진들, 역사가 되다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자료집 발간

이창호 사진작가가 기증한
사진 2만여점 선별해 묶어
불교 관련 사진들도 다수

‘일상적’이란 날마다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흔한 것들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뒤로 밀려 더 이상 흔하지 않은 것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집마다 설치된 세탁기가 당연한 오늘날, 마을 공동 빨래터란 누구에게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풍경일 수 있다. 골목 어귀에서 뛰놀던 동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방과후에 다녀야 하는 각종 학원에 넘겨준 지 오래다. 설과 추석이 되면 붉은 플라스틱 함지를 들고 길게 줄을 늘어서던 방앗간의 수증기 가득한 바쁜 움직임도, 홍콩 영화 마니아의 기대를 자극하던 담벼락의 단관 극장 영화 포스터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유 · 무형 문화유산을 보존 · 계승하며 살아온 불교의 경우 ‘잘 마모되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복식 등의 일상에서 미묘한 변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현대에서는 주로 사진으로 기록됐고, 이는 곧 역사가 된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민속아카이브 자료의 가치를 조명하고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아카이브 자료집 〈일상, 아카이브가 되다〉를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이창호 사진작가가 기증한 2만 4501점의 사진 가운데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우리 주변에 소소하지만 사라져가는 일상을 포착한 155점을 선별해 수록한 것이다.



이창호 사진작가가 촬영한 ‘통도사 운판’.

자료집에는 담겨있지는 않지만 아카이브화 된 기증 사진 중에는 불교 관련 사진도 다수 존재한다. 종교 신앙 카테고리에 포함된 4000여 점의 사진 중 1120점이 불교 사찰, 의식, 예불 등을 담아내고 있다.

기증자인 이창호는 오랫동안 출판사진가로 활동하면서 일상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천착하였고, 민속문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두고 활동을 이어간 사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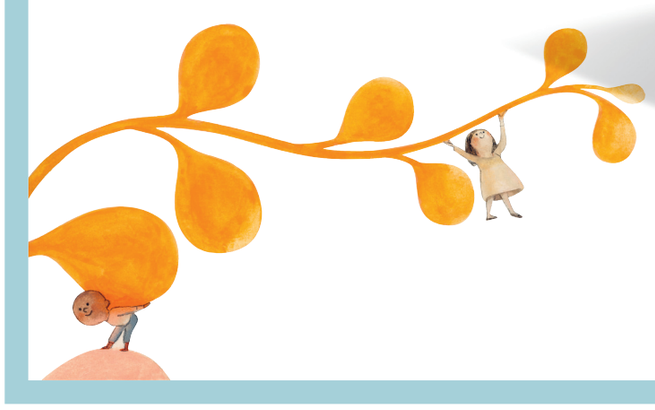
〈일상, 아카이브가 되다〉의 원문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발간자료원문검색〉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고, 책에 소개되지 않은 기증 사진은 〈민속아카이브 검색〉과 〈민속아카이브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작은 빛 하나가
온 하늘을 밝힐 순 없어도…
작은 시작이 되어 줄 거야!”

우리 아이 인성교육 19



칸 예 글
이자벨 아르스노 그림
황유진 옮김
32쪽 | 14,000원





한 편의 시와 같은 글,
잔잔한 울림이 있는 번역,
볼로냐 라가치 상 수상 작가의
마음 따뜻해지는 그림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그림책!

“아이가 마주한 어둠이 어떤 것이든, 붙들 수 있는 작은 희망은 늘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아이의 내면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 주는 다정한 안내서.” —커커스 리뷰

“이 책은 우리를 응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있는 힘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믿으며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고.” —퍼블리셔스 위클리

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전 19권)
아이 마음의 선한 씨앗에 물을 주는 그림책

1 화가 났어요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문태준 옮김 | 40쪽 | 12,000원

2 호호야, 그게 정말이야!
바이런 케이티 글 | 한스 빌헬름 그림
고정욱 옮김 | 32쪽 | 12,000원

3 주문을 걸어봐!
루이스 L. 헤이 외 글 | 마누엘라 슈워츠 그림
고정욱 옮김 | 32쪽 | 13,000원

4 천천히 걷다 보면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문태준 옮김 | 40쪽 | 11,000원

5 마법의 가면
스테판 세르방 글 | 일리아 그린 그림
이경혜 옮김 | 38쪽 | 10,000원

6 회색 아이
루이스 파레 글 | 구스티 그림
남진희 옮김 | 42쪽 | 11,000원

7 평화를 들려줄게
웬디 앤더슨 홀퍼린 글·그림 | 최성현 옮김
40쪽 | 11,000원

8 고래가 그물에 걸렸어요
로버트 버레이 글 | 웬델 마이너 그림
이정모 옮김 | 36쪽 | 13,000원

9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
기타무라 사토시 글·그림 | 배주영 옮김
33쪽 | 13,000원

10 소리산책
폴 쇼워스 글 | 알리키 브란덴베르크 그림
문혜진 옮김 | 33쪽 | 12,000원

11 놀이터는 내 거야
조셉 쿼플러 글·그림 | 권이진 옮김
42쪽 | 12,000원

12 무슨 벽일까?
존 에이지 글·그림 | 권이진 옮김
40쪽 | 12,000원

13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개 있어요?
존 에이지 글·그림 | 권이진 옮김
40쪽 | 12,000원

14 나는 귀신
고정순 글·그림 | 38쪽 | 13,000원

15 가만히 기울이면
조 로링 피셔 글·그림 | 나태주 옮김
30쪽 | 12,000원

16 너의 우주를 들어 줄게
A.C. 피츠패트릭 글 | 에리카 메디나 그림
권이진 옮김 | 40쪽 | 12,000원

17 나나가 집으로 돌아온 날
킴 톰식 글 | 해들리 후퍼 그림
김산하 옮김 | 66쪽 | 14,000원

18 오늘부터 다시 친구
나마 벤지만 글·그림 | 김세실 옮김
40쪽 | 14,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